

무주군, 일자리 공모 선정

사업비 1억 2000만원 확보... '반딧불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아이টে으로

무주군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주관한 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딧불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에 관한 아이টে으로 공모에 선정된 무주군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하는 협의체도 3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비 3,000만원을 포함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무주군은 3월부터 우수한 사업 아이টে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를 모집·선발하고 창업교육(42시간)과 초기사업비 지원, 창업자 사업과 촉진(창업상담센터 활용한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영식 일자리 담당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젊은 일꾼들이 제대로 날개를 펼 수 있

도록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라며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돼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285억여 원의 일자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225개 사업에 연 평균 3,2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국선열 희생정신 계승하기를”

장수군, 3·1절 기념행사 개최... 15분 선열 제례행사

3·1 독립운동 제99주년 기념행사가 1일 산서면사무소에서 안동환 장수부군수와 각급 기관단체장, 유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나라의 자주독립의 권리를 세계만방에 천명하기 위해 일제의 압박 하에서 기미독립 만세를 부르다 옥고를 치르신 15분 선열께 드리는 제례행사를 함께 치루었는데 안동환 부군수의 초헌례를 시작으로 유가족 회의장의 이현례, 지역출신 양모도 도의원의 종헌례 순으로 경건하게 거행됐다.

참석자들은 헌악을 하며 독립운

동으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서중·고등학교생들의 3.1절 합창과 참여자들의 만세삼창으로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겼다.

안동환 부군수는 축사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순국선열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계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번암면에 위치한 장안산하 죽림정사에서도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인 백용성 조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3.1절 보존행사가 개최되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18년도 첫 번째 장수군통합방위협의회의(의장 최용득)가 지난 27일 장수군통합방위 위원 및 군경 관계자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대남도발 정세에 대한 안보동영상상을 시청하고, 2018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018년 KR/FE(카리폴브 훈련)계획 보고, 2018년 장수군 민방위 실시계획 심의 및 통합방위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

2018년 장수군 민방위 실시계획에는 민방위 편성·운영 개선,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등 운영분야와 민방위 사태 시 주민보호를 위한 준비, 민방위대 동원, 활용 정비 등 민방위 사태 시 조치분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민방위훈련 등 민·관·군·경이 협력하여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져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인삼 재배·매출 확대 시책 추진

진안 인삼·홍삼 산업정책 설명회' 가져

진안군과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고근택)는 지난 28일 홍삼연구소에서 인삼·홍삼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판매점 경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진안 인삼·홍삼 산업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진안군과 홍삼연구소가 추진하는 인삼·홍삼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고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진안군은 줄어들고 있는 인삼재배 농가와 경작 면적을 늘리기 위해 진안인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6년 근 인삼 재배 확대를 위한 시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안홍삼의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를 위해 GAP 인증,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등을 늘려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HACCP 시설 지원, 홍삼 집적화사업 추진,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강화, 판매장 관리, 수출확대 등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진안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소라는 비전 아래 진안홍삼 명품화, 대중화 및 내실화를 전략으로 제시하며 진안홍삼을 이용한 개별인정형 건강식품 개발을 위해 향토명품화 사업과 진안향토자원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삼 재배농가를 위해 인삼뿌리썩음병 방제 미생물 보급사업 추진과 홍삼 명품화를 위한 품질인증제 및 시험검사지원, 홍삼 대중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 수확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선행연구제 도입,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홍삼연구 내실화도 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안군과 연구소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안고원의 인삼·홍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무원 지방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진안군은 지난 28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진안군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송재

복 교수를 초빙, '지방자치 현주소와 지방분권의 필요성'라는 주제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현황과 실태, 지방분권 주요과제와 방향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 역량을

모으기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지방 4대 협의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석자들의 관심 확산을 위해 리플릿 배부와 서명부 작성 등을 병행 진행했다.

이항로 군수는 "모든 분야가 지방의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 실시

무주 어울림 발레단·반디 아띠 줄넘기단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인삼동회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매주 토요일, 10개월에 걸쳐 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전라북도의 주도하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국적의 이민자와 일반 주민들을 문화·예술 놀이터로 자연스럽게 엮어 어울림의 자리를 만들도록 특별한 만남이 아닌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이민자들을 '특별함'이 아닌 '다같이 함께 사는 이웃'으로 인식시키는 취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올해의 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은 3년간 지속된 기존 프로그램이었던 수화로 소통하는 '반디수화합창단'과 지역의 여성들로 구성된 '데인보우밴드'가 계속사업의 형성 및 자생적

생존의 기반 마련 취지의 이유로 자조모임 성격의 활동으로 거듭나 행보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수요 조사를 거쳐 새로운 사업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발레라는 하나의 예술로 소통하는 '무주 어울림 발레단'과 음악과 줄넘기를 풀라보 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반디 아띠 줄넘기단'으로 모두 선주민과 이주민 자녀를 타깃삼아 향혜의 뜻을 올리게 되었다.

앞으로 11월까지 무주종합복지관 소강당과 대강당에서 각각 30회기씩 진행될 두 사업은 정규 수업 외에도 참여자의 부모 친목모임인 '친(親)친(親)모임', 각각의 특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현장학습', 참여 아동을 위한 '관계증진 및 자기진작 목적의 '워크숍'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322-1130)로 문의. /무주=전문선 기자

장계면 '주부 건강 임파워먼트 특강'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홍인순)에서는 지난 28일 '가족건강, 집에서 내가 국가대표! 주부 건강 임파워먼트 특강'을 장계농협 주부대학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가족 건강의 중심인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 역량 강화를 위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내용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건강한 밥상 만들기 교육과 저염 간장 및 잡곡 약식 만들기 조리 실습, 자가 운동법 교육 및 스트레칭 등을 실시했다. 이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개월간 주2회 집중 건강 역량 강

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건강간지도지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작은 건강 동아리'들의 자발적 구성과 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352-8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

무주군 노인사회활동지원 발대식 및 안전교육이 지난 28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주관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군의회 유승열 의장, 사업 참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 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설명과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화재예방교육(무진장소방서), 활동교육(일하는 백제가 아름답다)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올해 무주군이 마련한 노인일자리 총 1,431개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통해 추진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노케어와 게이트볼 강사, 경로당 코디네이터 등 159개다.

참여자들은 취약계층 가정 안부확인과 맞벌이, 경로당 방문, 건강상담·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